

2020년 3월 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민주당 경선, 긴급자금 투입으로 강세 미 의회, “코로나 19 해결 위해 83억 달러 긴급자금 투입”

미 증시 변화 요인: 민주당 경선, IMF, 미 의회 자금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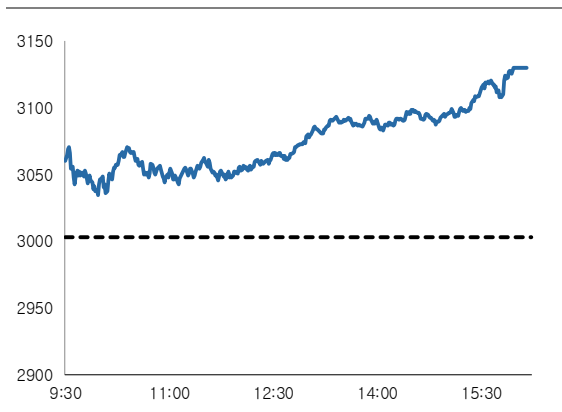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및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 한때 미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으나, 의회가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을 발표하자 재차 상승폭 확대. 더 나아가 블룸버그가 민주당 경선에서 사퇴하며 바이든 지지 선언한 점도 긍정적. 이 결과 기술주 및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 주도(다우 +4.53%, 나스닥 +3.85%, S&P500 +4.22%, 러셀 2000 +3.04%)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138명으로 전일 대비 30여명 증가하고 LA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우려가 확산 되기도 했으나, 미 의회가 83억 달러 긴급 자금 투입을 위한 표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 우려는 완화. 여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확진자가 급증하자 IMF는 글로벌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각국과 주요 기관의 자금 투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더불어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들이 견고하고, 연준 또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우호적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경선에서 조 바이든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을 하며 미 증시 상승을 주도. 이번 슈퍼 화요일을 통해 조 바이든이 확보한 대의원(566)수가 샌더스(501)를 넘어선데 이어 부티지지를 비롯해 블룸버그 등 중도 성향의 후보들이 사퇴하며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자 바이든 지명 가능성이 일주일 전에 비해 59%나 급증한 80%를 기록. 반면, 샌더스 후보는 36% 감소한 12%. 최근 미 증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샌더스 후보의 약진이 이번 슈퍼 화요일 경선을 통해 한풀 꺾였다는 점이 오늘 미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

샌더스의 경우 법인세 인상(21%→35%), Medicare for All, IT 기업 규제강화 등을 주장해 왔던 후보라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경우 미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그러나 슈퍼 화요일에서 부진하자 그동안 관련 우려로 하락하던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을 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물론 산업재등이 반사이익을 얻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상승률(%)	Close	D-1	지수	상승률(%)	Close	D-1
KOSPI	+2.24	2,059.33	홍콩항셱	26,222.07	-0.24		
KOSDAQ	+2.38	641.73	영국	6,815.59	+1.45		
DOW	+4.53	27,090.86	독일	12,127.69	+1.19		
NASDAQ	+3.85	9,018.09	프랑스	5,464.89	+1.33		
S&P 500	+4.22	3,130.12	스페인	8,910.00	+1.12		
상하이종합	+0.63	3,011.67	그리스	770.54	+0.55		
일본	+0.08	21,100.06	이탈리아	21,946.03	+0.9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94%

미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의 부진으로 'Medicare for All' 이슈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유니아이티헬스(+10.72%), 엔섬(+15.62%), 휴마나(+14.43%), 시그나(+10.77%) 등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했다. 더불어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도 완화되었다는 보도로 애플(+4.64%), MS(+3.67%), 알파벳(+3.28%), 아마존(+3.50%) 등 대형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애플의 경우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감안 수요 부진 우려가 일부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폭이 컸다. 이는 브로드컴(+4.08%), 퀴보(+4.15%), 스카이웍(+3.74%) 등 부품업체의 강세를 야기시켰다.

한편, 마이크론(+6.74%)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서 D램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강세를 보였다. 인텔(+4.84%), TI(+4.60%)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동반 상승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4% 상승했다. 반면, 소매업체 로스스토어(+0.31%)는 예상과 부합된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드언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강보합을 보였고 노드스트롬(-1.67%)과 어반 아웃피터(-7.48%) 등도 실적 발표 후 하락했다. JP모건(+2.47%), BOA(+2.31%) 등 금융주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27%	대형 가치주 ETF(IVE)	+4.23%
에너지섹터 ETF(OIH)	-0.46%	중형 가치주 ETF(IWS)	+3.35%
소매업체 ETF(XRT)	+2.55%	소형 가치주 ETF(IWN)	+2.51%
금융섹터 ETF(XLF)	+3.31%	대형 성장주 ETF(VUG)	+4.08%
기술섹터 ETF(XLK)	+4.29%	중형 성장주 ETF(IWP)	+4.0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53%	소형 성장주 ETF(IWO)	+3.29%
인터넷업체 ETF(FDN)	+3.44%	배당주 ETF(DVY)	+2.93%
리츠업체 ETF(XLRE)	+3.8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86%
주택건설업체 ETF(XHB)	+4.9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28%
바이오섹터 ETF(IBB)	+4.69%	미국 국채 ETF(IEF)	-0.22%
헬스케어 ETF(XLV)	+5.76%	하이일드 ETF(JNK)	+1.33%
곡물 ETF(DBA)	-0.64%	물가연동채 ETF(TIP)	-0.15%
반도체 ETF(SMH)	+5.13%	Long/short ETF(BTAL)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50.25	+2.22%	-2.42%	-12.61%
소재	355.49	+4.01%	+1.26%	-5.50%
산업재	645.95	+4.19%	-0.69%	-7.25%
경기소비재	957.38	+3.41%	-0.48%	-5.73%
필수소비재	650.13	+4.92%	+2.60%	-0.25%
헬스케어	1,162.75	+5.81%	+3.02%	-1.83%
금융	459.55	+3.29%	-2.85%	-9.05%
IT	1,642.98	+4.28%	+1.19%	-5.58%
커뮤니케이션	177.63	+3.58%	-0.25%	-4.74%
유틸리티	347.07	+5.69%	+1.90%	-0.16%
부동산	248.49	+3.99%	+0.42%	+0.6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3.69% MSCI 신흥 지수 ETF 는 1.78%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769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2.30pt 상승한 280.5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4.8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전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의지 강화 및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약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2% 넘게 상승했다. 오늘 미 증시도 민주당 경선과 더불어 미국 의회와 IMF 의 긴급자금 투입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대체로 코로나 19 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자금 투입을 통해 일부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례가 과거와 달리 수요와 함께 공급 부문을 약화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UN 에서는 이번 사태로 수출액이 500 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도 38 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기업이익 둔화 우려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IMF 도 이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2.9%)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1 월 발표했던 전망치(3.3%)를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결국 코로나 이슈가 기업이익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상승은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투입, 연준을 비롯해 캐나다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당분간 주식시장은 반등 기대가 높으나,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제지표 견고

미국 2 월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전월(20 만 9 천건)을 하회한 18.3 만 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예상(16.5 만 건)을 상회해 여전히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였다.

2 월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5.5)이나 예상(55.0)을 상회한 57.3 으로 발표되었다. 신규주문(56.2→63.1)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용지수(53.1→55.6)도 상승했다. 그러나 가격지수(55.5→50.8)과 상업활동지수(60.9→57.8)는 하락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지속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에 대해 예상보다 적은 8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OPEC 회담에서 사우디가 하루 150 만 배럴 감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감산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여러 회원국이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어 추가 감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낙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연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50bp 인하한 여파로 전일 약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반발 매수가 유입된 점도 강세 요인이었다. 더 나아가 조 바이든이 민주당 경선에서의 약진 또한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엔화는 글로벌 주식시장 급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그 폭은 제한되었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등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및 지표 개선에 기반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특히 장기물의 경우는 지표 개선에 상응한 반면, 단기물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50bp 금리를 인하하자 하락했다. 한편, 비둘기 성향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3 월 FOMC 에서 금리 인하 기정 사실 아니다” 라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약화 시키며 단기물 금리하락을 제한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부 공급망의 혼란이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해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약보합을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부양정책에 힘입어 강보합권을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6.78	-0.85	-4.00	Dollar Index	97.371	+0.22	-1.64
브렌트유	51.13	-1.41	-3.18	EUR/USD	1.1133	-0.36	+2.32
금	1,643.00	-0.09	-0.01	USD/JPY	107.5	+0.35	-2.65
은	17,246	+0.34	-3.73	GBP/USD	1.2864	+0.41	-0.32
알루미늄	1,726.00	+0.23	+1.77	USD/CHF	0.9571	+0.07	-2.02
전기동	5,684.00	+0.31	+0.25	AUD/USD	0.6623	+0.59	+1.21
아연	1,982.00	+0.33	-3.13	USD/CAD	1.3394	+0.10	+0.46
옥수수	385.00	+0.98	+2.80	USD/BRL	4.5792	+1.59	+2.91
밀	518.25	-1.71	-3.27	USD/CNH	6.9228	-0.38	-1.40
대두	907.25	+0.42	+1.71	USD/KRW	1187.80	-0.62	-2.39
커피	118.40	-3.11	+7.00	USD/KRW NDF 1M	1184.86	-0.11	-2.2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034	+3.54	-30.27	스페인	0.171	-1.40	-7.60
한국	1.298	-8.20	-10.70	포르투갈	0.236	-2.00	-3.40
일본	-0.126	-1.90	-4.00	그리스	1.188	-2.30	+4.80
독일	-0.638	-1.30	-13.30	이탈리아	1.012	+2.60	+2.00